

1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정답> ②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른 민무늬 토기, 화살촉 등의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제시되어 있다. 제주 고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초기의 대표 유적이다. 또한 그냥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 토기이지만,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이다. 따라서 제시된 '(가) 시대'는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서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참고로 제주 고산리 유적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관광지구 안에 있는 유적이다.

오답 해설>

- 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다.
- ③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④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은 것 역시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⑤ 의례 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2 - 초기 국가, 부여

정답> ③
위의 사료에서는 현도의 북쪽 천 리 쯤에 있다는 점,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읍루와 접해 있다는 점이 나와 있다. 아래의 사료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한다는 점과 왕의 장례에 옥갑을 사용한다는 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국가는 초기 국가, 부여임을 알 수 있다.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오답 해설>

- ①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와 동예이다.
- ②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 ④ 신성 구역인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한 나라는 삼한이다.
- ⑤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3 - 고구려의 문화유산

정답> ③
고분 벽화 특별전이라는 제목이 제시되어 있다. 강서대묘 사신도, 무용총 수렵도, 안악 3호분 등의 고분 벽화 수집 점이 전시된다는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 이들 고분들의 명칭으로 미루어 보아 제시된 '(가) 국가'는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선지 중 ③이 금동 연가 7연명 여래 입상으로 고구려의 불상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야의 철제 판갑옷이다.
- ② 발해의 석등이다. 발해 상경 용천부에 위치한 석등이다(흑룡강성).
- ④ 가야의 기마 인물형 토기[토기 기마 인물형 주자]이다.
- ⑤ 진묘수로, 백제의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되었다.

4 - 신라의 법흥왕

정답> ④
위의 사료에서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관리들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다는 점(520), 아래의 사료에서 상대등의 관직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531)으로 미루어 보아 제시된 자료의 왕은 신라의 법흥왕(재위 514-540)임을 알 수 있다. 법흥왕의 업적 중 하나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것이 있다(527).

오답 해설>

- 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킨 왕은 지증왕(재위 500-514)이다(512).
-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한 왕은 신문왕(재위 681-692)이다(687-689).
- ③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한 왕은 진흥왕(재위 540-576)이다(545).
- 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한 왕은 선덕여왕(재위 632-647)이다(643).

2019년도
제4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5 - 대가야 정답> ①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토제 방울 1점을 비롯하여 굽은옥, 화살촉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진아시왕'을 시조로 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나와 있는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가) 나라'는 결국 대가야임을 알 수 있다. 대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 금관가야가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몰락한 5세기 이후의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오답 해설> ②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설치한 나라는 고려이다. ③ 9주 5소경의 지방 행정 제도를 둔 나라는 통일 신라이다. ④ 귀족 합의제인 화백 회의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이다.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나라는 백제이다. 6 - 발해 무왕 정답> ③ 인안이라는 연호를 내세웠다는 점, 발해의 제2대 왕이라는 점, 일본에 사신과 국서를 보내 교류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통해 제시된 왕은 발해의 무왕(재위 719-737)임을 알 수 있다. 당과 흑수부 말갈 문제로 대립하던 중 732년에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 등주(덩저우)를 선제 공격하였다. 오답 해설> ① 낙랑군을 몰아낸 왕은 고구려의 미천왕(재위 300-331)이다 (331). ②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왕은 백제의 성왕(재위 523-554)이다 (538). ④ 3성 6부의 중앙 관제를 정비한 왕은 제3대 발해 왕인 문왕(재위 737-593)이다. ⑤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확립한 왕은 제10대 선왕(재위 818-830)이다.	7 - 백제 부흥 운동 정답> ④ 흑치상지가 임존산(任存山)을 지키면서 (당의) 소정방의 병사를 막아 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흑치상지(630?~689)가 당의 소정방과 싸운 것은 백제 멸망 직후의 일로, 이른바 백제 부흥 운동(660~663)과 관련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또다른 백제 부흥 운동의 핵심 인물로 왕족인 복신과 승려 도침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류성에서 일어났다. 8 - 골품제 정답> ⑤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 (가)를 따져서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삼국 중 신라에만 독특한 폐쇄적 신분 제도인 골품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골품제는 제시된 자료와 같이 단지 관등 승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오답 해설> ① 진대법은 일종의 빈민 구제 제도이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인 194년에 을파소의 건의로 도입되었다. ② 원성왕이 제정한 인재 등용 제도는 독서삼품과이다(788). 유학 교육에 따른 능력 위주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③ 후주 출신의 쌓기의 건의로 실시된 것은 고려의 과거이다. 광종 9년인 958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④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의 지배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인 견제책으로 전민변정도감의 빈번한 설치를 들 수 있다.
---	--

9 - 고운 최치원

정답> ④

나이 12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6년 만에 빈공과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중국에서 지은 글을 모아 계원필경집 1부 20권을 올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인물은 6두품 출신이자 대표적인 도당 유학생인 최치원(857~?)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빈공과란 당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과거 시험이다. 생물연도에서 알 수 있듯 최치원이 살았던 시기는 신라 말이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것은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한 것은 신문왕 즉위년인 681년의 일이다. 김흠돌은 김유신이 조카이면서, 김유신의 사위였다. 나아가 신문왕의 장인이기도 하였다. 어쨌든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 진압을 계기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전제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②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린 것은 고려 성종 때의 일이다(982).
- ③ 원광이 세속 5계를 제시한 것은 신라 진평왕 때의 일이다(600).
- ⑤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오른 것은 654년의 일이다. 29대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으로 즉위하였다.

10 -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 석탑

정답> ①

신문왕 2년(682)에 세워진 탑이라는 점, 삼국 통일 이후 조성된 석탑 양식의 전형이라는 점, 지붕돌·몸돌 등 각 부분이 여러 개의 석재로 조립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점 등을 통해 제시된 자료의 탑은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선지 ①은 제시된 자료의 설명대로 쌍탑 중 동탑이다.

오답 해설>

- ② 불국사의 다보탑이다. 대웅전 마당 동쪽에 배치되어 있다.
- ③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축조하였다.
- ④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다. 송의 영향을 받았다.
- ⑤ 복원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2018년 6월 공개). 목탑 양식을 계승하였다

11 - 고려 광종

정답> ⑤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왕은 고려의 광종(재위 949-975)이다. 재위 7년인 956년에 시행하였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오답 해설>

- 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왕은 성종(재위 981-997)이다(983).
- ②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둔 왕은 공민왕(재위 1351-1374)이다(1366).
- ③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한 왕은 고려 태조(재위 918-943)이다(918).
- ④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한 왕은 숙종(재위 1095-1105)이다(1097).

12 - 궁예

정답> ②

신라 왕족 출신으로,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운 인물은 궁예(?~918)이다. 901년에 세운 나라는 후고구려이며, 이후 904년에 철원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마진으로 고쳤다. 또한 국정 최고 기관인 광평성 등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인물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867~936)이다.
- ③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한 인물은 장보고(?~846)이다(828~851).
- ④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한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877~943)이다(936.9).
- ⑤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한 인물은 견훤이다(927).

13 - 동북 9성 반환 후의 사실

정답> ③

여진이 9성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9성 사이가 멀고, 골짜기가 험하여 지키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과 여러 신하가 의논하여 끝내 9성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관의 여진 정벌로 설치한 동북 9성을 돌려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동북 9성이 설치된 때는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이다. 이자겸이 금의 사대 요구 수용을 주장한 것은 인종 4년인 1126년의 일이다(결국 사대 요구 수용).

오답 해설>

- ① 강감찬이 귀주에서 외적을 격퇴한 것은 현종 10년인 1019년의 일이다.
- ②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목종]을 폐위한 것은 1009년의 일이다. 거란의 제2차 침입의 구실이 되었다.
- ④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거란의 제1차 침입).
- ⑤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이 축조된 것은 1033년에서 1044년 사이의 일이다.

14 - 고려의 관학 진흥책

정답> ④

왼쪽의 말풍선에서 최종의 9재 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로 관학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서는 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선지 중에서 고려의 관학 진흥책과 관련된 것을 찾으려 한다. 예종은 관학 진흥을 위해 국자감 내에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였다(1109). 이 외에도 일종의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하였으며(1119), 청연각과 보문각도 설치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독서삼품과를 시행한 왕은 신라의 원성왕이다(788).
- ② 초계문신제를 실시한 왕은 조선의 정조이다(1781).
- ③ 수도에 4부 학당을 둔 것은 조선 초기의 일이다. 원래 5부 학당을 두려고 하였으나 세종 27년(1445)에 북학이 폐지되어 4부(동학·서학·중학·남학)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 ⑤ 경당을 설립하여 학문을 가르친 것은 고구려이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 후에 지방에 설치된 교육 기관으로 유학과 활쏘기 등을 가르쳤다.

15 - 고려의 경제 상황

정답> ②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는 점, 송의 상인과 탐라국[제주]도 특산물을 바쳤다는 내용 등을 통해 제시된 자료는 고려 시대임을 알 수 있다. 고려 때는 경시서가 설치되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시기는 초기 국가, 고구려 때의 일이다.
- ③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모내기법 등을 소개한 농가집성이 편찬된 것은 효종 6년인 1655년의 일이다.
- ⑤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16 - 보조국사 지눌

정답> ⑤

'불일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았다는 점, (전남 순천에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려 했다는 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1158~1210)임을 알 수 있다. 지눌은 또 돈오점수를 주장하며 수행 방법으로 정혜쌍수를 내세웠다.

오답 해설>

- ①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쓴 인물은 신라의 원효(617~686)이다.
-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인물은 신라의 의상(625~702)이다.
- ③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
-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인물은 신라의 혜초(704~787)이다.

17 - 원 간섭기의 사회 모습

정답> ④

공주의 겁령구[시종인]들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한 내용이 나와 있다. 또 첨의부에서 제국 대장 공주의 겁령구와 관료들이 종을 땅을 많이 차지하였다는 점과 사패를 도로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아뢰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제국 대장 공주는 고려 충렬왕(재위 1274-1308)의 제1비로 몽골인이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는 원 간섭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원 간섭기 고려에서는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참고로 첨의부는 원 간섭기 최고의 정부 기구로, 종래의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합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서얼이 통정 운동을 전개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②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신라 헌덕왕 14년인 822년의 일이다.
- ③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한 것은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
- ⑤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한 것은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

18 - 삼국유사

정답> ④

왼쪽의 말풍선에서는 승려 일연(1206~1289)이 편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의 말풍선에는 왕력편, 기이편, 흥법편 등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을 비롯한 민간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이 책'은 충렬왕 7~9년(1281~1283) 사이에 집필된 삼국유사임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대표적인 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이다(1145).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이다.
- ②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서는 유득공의 발해고이다(1784).
- ③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된 사서는 조선 시대의 '실록'이다.
- 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는 삼국사기이다.

19 - 사헌부

정답> ⑤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다는 것에서 제시된 자료가 말하는 정치 기구는 사헌부임을 알 수 있다. 대사헌이 수장으로, 5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한 기구는 한성부이다.
- ② 고려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한 기구이다. 언론 기구인 조선의 삼사와는 기능이 다르다.
- ③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의 건의로 혁파된 기구는 도교 의식을 주관하던 소격서이다.
- ④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한 것은 비변사이다.

20 - 세종 대의 사실

정답> ④

조선의 건국 시조들을 찬양하고 왕조의 창업을 합리화한 서사시가 제시되어 있다. 정인지, 권제 등에게 명하여 훈민정음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다는데, 제시된 서사시를 살펴 보면, '해동의 여섯 용이 나시어서'라든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등에서 용비어천가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동국정운 등이 한글로 편찬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세종(재위 1418-1450) 대에 있었던 일이다. (1391)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처음 간행된 것 역시 세종 대의 일이다(1429).

오답 해설>

- ①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된 것은 정조 대의 일이다(1790).
- ②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도감이 간행된 것은 광해군 대의 일이다(1610).
- ③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제작된 것은 영조 대의 일이다(1740년대).
- ⑤ 각 도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것은 성종 대의 일이다(1481).

21 - 과전법과 관수 관급제 사이의 사실

정답> ⑤

(가)에서는 도평의사사가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하고, 그에 왕이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과전법이 시행된 공양왕 3년(1391)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한명회 등이 직전(職田)의 세를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성종 즉위년인 1470년에 도입된 관수 관급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관수 관습제 시행 전인 세조 12년(1466)에 직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때 과전은 1대에 국한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고, 동시에 수신전·홀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가 폐지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된 것은 신라 성덕왕 때(재위 702-737)의 일이다(722).
- ②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가 발급된 것은 대한 제국 때의 일이다(1899~1904).
- ③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기를 차등 지급한 것은 고려의 전시과이다.
- ④ 개국 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이 지급된 것은 고려 태조 때(재위 918-943)의 일이다(940).

22 - 조선 성종의 정책

정답> ③

신숙주, 정척 등이 국가와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유교의 예법에 맞게 정리하여 완성한 국조오례의가 제시되어 있다.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것은 조선 성종(재위 1469-1494) 5년인 1474년이다. 세조 때 착수한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된 것 역시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실시한 왕은 광해군(재위 1408-1450)이다(1408).
- ②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한 왕은 세종(재위 1418-1450)이다(1420).
- ④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킨 왕은 태종(재위 1400-1418)이다(1402).
- ⑤ (조광조의 건의로) 현량과를 실시하여 신진 사림을 등용하고자 한 왕은 중종(재위 1506-1544)이다(1519).

23 - 퇴계 이황

정답> ③

생몰연도가 1501년에서 1570년이고, 호가 퇴계, 퇴도이며,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는 내용 등에서 제시된 인물은 이황임을 바로 알 수 있다. 퇴계 이황의 저술 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지은 것을 들 수 있다(1568).

오답 해설>

- 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 ②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기축봉사를 올린 인물은 우암 송시열(1607~1689)이다(1649).
- ④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동호문답을 저술한 인물은 율곡 이이(1536~1584)이다(1569).
- 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경국전을 편찬한 인물은 삼봉 정도전(1342~1398)이다(1394).

24 - 훈련도감

정답> ②

왜군의 조총 부대에 맞서 조직되었다는 점, 삼수병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된 '이 부대'는 1593년(선조 26년)에 설치된 훈련도감임을 알 수 있다. 훈국이라고도 불렀는데, 중앙군의 핵심 군영이었다. 또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오답 해설>

- ①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은 삼별초이다.
- ③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된 부대는 고려의 지방군인 주진군이다.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되었다.
- ④ (삼군도체찰사)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세종 1년인 1419년의 일이다.
- ⑤ 국왕[정조]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둔 부대는 장용영이다(1793).

25 - 병자호란(삼전도비)

정답> ⑤

최명길(1586~1647)이 적장을 보고 까닭 없이 군사를 발동하여 쳐들어온 뜻을 묻겠다는 의견을 아뢰고 있다. 나아가 한성 가까운 곳에서 방어할 만한 땅은 남한산성만 한 데가 없으니 그쪽으로 옮겨갈 것을 (임금에게) 요청하고 있다. '최명길'이라는 인물, '남한산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1636년(인조 14년) 말 급박했던 병자호란 때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는 이듬해 1월 30일 결국 청 태종에게 굴복하여 삼전도(오늘날의 서울 송파)에서 항복하였다. 청 태종은 귀환하면서 삼전도비를 건립할 것을 명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펼친 것은 고려 시대로, 1270년에서 1273년 사이의 일이다.
- ② 통신사가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에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1607년의 일이다. 이후 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파견되었다.
- ③ 위화도 회군이 일어난 것은 고려의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
- ④ 계해약조가 체결된 것은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26 - 예송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서 '현종 때' 일어났음이 나와 있고, 오른쪽 말풍선에서 '효종 사후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라는 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현종 즉위년인 1659년과 현종 15년인 1674년에 일어난 예송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각 기해예송(1차 예송)/갑인예송(2차 예송)].

오답 해설>

- ①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사화(士禍)이다.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을사사화(1545)가 있다.
- ③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던 시기는 광해군 대(재위 1608-1623)이다.
- ④ 외척 세력인 대운과 소운의 대립으로 일어난 사건은 을사사화이다.
- 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선조 24년(1591)에 발생한 세자 책봉 문제(건저의 문제) 때문이다.

27 - 영조의 업적

정답> ②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하여 시행한 청계천 준설 공사 기록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신문고를 다시 설치한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자 한 내용도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이 왕'은 조선의 영조(재위 1724-1776)임을 알 수 있다. 영조는 1760년에 춘천사를 설치하여 청계천을 준설하였다.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한 왕은 광해군(재위 1608-1623)이다(1609).

오답 해설>

- ① 영조는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1746).
- ③ 영조는 또한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1770).
- ④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하여 균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1750).
- ⑤ 영조는 탕평비를 건립하여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하였다(1742). 영조 자신이 친서하여 이를 비에 새겨 성균관의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웠다.

28 - 연암 박지원

정답> ①

중국의 재산이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함은 모두 '수레를 쓴 이익'일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다지 가난함은 한마디로 '수레가 국내에 다니지 못한 까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열하일기를 통해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주장한 연암 박지원(1737~1805)의 글임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한문 소설도 여럿 창작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하였다.

오답 해설>

- ②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강조한 인물은 조정 박제가(1750~1805)이다.
- ③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한 인물은 성호 이익(1681~1763)이다.
- ④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한 인물은 농암 유수원(1694~1755)이다.
- ⑤ 색경에서 담배, 수박 등의 상품 작물 재배법을 소개한 인물은 서계 박세당(1629~1703)이다.

29 - 세도 정치기의 모습

정답> ④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강화도의 용흥궁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자료의 설명대로 철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동 김씨인 순원 왕후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소수의 외척 가문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권력을 장악한 이 시기를 '세도 정치기'라고 한다. 흥선 대원군이 집권(즉 고종 즉위)하기 전인 순조, 헌종, 철종 세 왕의 재위 시기(19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조선통보는 조선 전기인 세종 대(재위 1418~1450)와 중기인 인조 대(재위 1623~1649)에 주조된 법화이다.

오답 해설>

- ① 19세기 들어 해안에 이양선이 출몰하는 빈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 ② 세도 정치기는 특히 삼정(전정, 군정, 환곡)이 극히 문란하였다.
- ③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철종 13년(1862)에 일어난 임술[진주] 농민 봉기 때문이다.
- 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예언 사상(대표적으로 정감록), 미륵 신앙, 무격 신앙이 크게 유행하였다.

30 - 김홍도의 풍속화

정답> ③

'단원 특별전'이라는 제목의 기획 전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풍속화, 산수화, 기록화, 초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긴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단원이 곧 조선 후기의 대표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1745~?)이다. 자료로 옥순봉도와 자화상이 나와 있고, 제시된 선지에서는 ③(벼타작도)이 해당된다.

오답 해설>

- ① 김득신(1754~1822)의 '파적도(야묘도추)'이다.
- ② 신사임당(1504~1551)의 초충도(모두 8작품) 중 한 그림이다.
- ④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이다(1751).
- 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이다.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유배가기 전이나 유배간 뒤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의리로 대하는 이상적(1804~1865)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그려 준 것이다.

31 - 흥선 대원군의 정책

정답> ⑤

나라 안의 서원과 사묘(祠廟)를 모두 철폐하고 48개소만을 남겼다는 내용, 만동묘도 철폐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제시된 (가) 인물은 흥선 대원군(1820~1898)임을 알 수 있다. 흥선 대원군은 집권 후 다양한 대외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지역 단위로) 사창제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1867, 고종 4).

오답 해설>

- ①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한 인물은 효종(재위 1649~1659)이다(1654·1658). 참고로 '나선'은 시베리아 지역까지 밀고 내려온 러시아를 지칭한다.
- ②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인물은 숙종(재위 1674~1720)이다(1712).
- ③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된 것은 순조(재위 1800~1832) 1년인 1801년의 일이다. 신유사옥이라고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이승훈·이가환·정약용 등의 천주교도와 진보적 사상이가 처형 또는 유배되었다(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비롯한 교도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 유배).
- ④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인물은 정조(재위 1776~1800)이다(1785). 경국대전과 속대전 등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통일 법전이다.

32 - 평양

정답> ①

제시된 지도를 살펴보면, 대동문·보통문·을밀대·부벽루·안학궁 터·대성산성이 나와 있다. 이들 유적은 모두 평양(예전의 서경)에 있는 유적들이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서울 덕수궁 석조전이다(1946.3).

오답 해설>

- ② 대성 학교는 1908년 9월에 평양에서 설립되었다.
- ③ 고무 공장 노동자 강주룡(1901~1931)이 노동 쟁의를 전개한 곳은 평양의 을밀대이다(1931.5).
- ④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관민들에 의해 불태워진 곳은 평양의 대동강에서이다(1866.8).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신미양요의 발미가 되었다(1871.5).
- ⑤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 장려회가 결성된 곳 역시 평양이다(1920. 8). 참고로 서울에서도 1923년 1월에 같은 명칭의 조선 물산 장려회가 결성되었다.

33 - 강화도 조약

정답> ④

우리측 대표 신헌과 일본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작년에 일어났던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요구했다는 점이 나와 있다. 1876년 2월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임을 알 수 있다. 강화도 조약 5관에는 부산 외 2곳에 개항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원산과 인천).

오답 해설>

- ① 방곡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한 조약은 1883년 7월에 체결한 조일 통상 장정(무역 규칙)이다.
 - ② 메가타가 제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된 조약은 1904년 8월에 체결한 제1차 한일 협약이다.
 - ③ 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조약은 1882년 5월에 체결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제2조).
 - ⑤ 고종이 (제2차 세계 평화 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부당성을 알리고자 한 조약은 1905년 11월에 체결한 제2차 한일 협약, 즉 이른바 을사늑약이다.
- *'만국 평화 회의'는 일본식 표기라는 지적에 따라 '세계 평화 회의'로 표시함.

34 - 1880년대 전반기에 일어난 사건들

정답> ①

(가)에서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고종이 청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것은 1880년 12월의 일이다.

(나)에서는 대원군이 5군영의 군사 제도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난병들은 물러가라는 명을 내리고 대사면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임오군란으로 일시적으로 집권하게 된 (흥선) 대원군과 관련된 사실이다. 1882년 6월의 일이다.

(다)에서는 민영익이 우영사로서 우정국 낙성연에 참가하였다가 흥도들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왕이 경우궁으로 거처를 옮긴 사실까지 나와 있는데, 1884년 12월 갑신정변 때의 일이다.

(라)에서는 김윤식이 영국 총영사에게 거문도를 점거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와 있다. 1885년 4월에 발생한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어난 올바른 순서는, (가)-(나)-(다)-(라)이다.

35 - 영선사와 보병사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서 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하여 선진 과학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으로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일을 이홍장과 협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인물은 1881년 9월 영선사를 이끌고 청에 갔던 김윤식(1835-1922)임을 알 수 있다. 영선사에 파견된 이들은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게 되었는데, 귀국 후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오른쪽 말풍선에서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와 양국의 친선을 위해 파견되었다는 점,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고 국서와 신임장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제시된 인물은 1883년 7월에 미국으로 파견된 보병사를 이끈 민영익(1860~1914)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귀국할 때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온 인물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홍집(1842~1896)이다.

③ (일본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긴 인물은 신숙주(1417~1475)이다(1471).

④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한 인물은 역관 오경석(1831~1879)이다(1853~1859).

⑤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은 조사시찰단이다(1881.4).

36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

정답> ①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이 일련의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백산 봉기가 있었던 날은 1894년 3월 25일과 26일 양일이다. 참고로 백산은 오늘날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이다. 다음으로 황룡촌 전투가 있었던 날은 1894년 4월 23일로, 이때 동학 농민군은 중앙 경군을 격파하였다.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 집결한 것은 제2차 봉기 때의 일로, 1894년 10월 9일의 일이다. 이후 동학 농민군은 공주로 진군하였는데, 동년 11월 9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대패하였다. 조선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된 것은 1894년 5월 8일이다.

오답 해설>

②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된 것은 1892년 11월의 일이다.

③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에게 승리한 것은 황룡촌 전투 전인 1894년 4월 6일과 7일의 일이다. 이때의 관군은 전라도 감영군이다.

④ 사태(고부 농민 봉기)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1차 봉기(1894.3) 전인 1894년 3월의 일이다.

⑤ 전봉준이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한 것은 1894년 1월의 일이다(고부 농민 봉기).

37 - 을미의병

정답> ①

의암 유인석(1842~1915)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북 제천의 자양영당이 제시되어 있다. 유인석이 복수보형(復讐保形)을 기치로 8도의 유림을 모아 의병을 일으키려는 비밀회의를 열었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 1895년에 일어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봉기한 을미의병을 가르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민종식이 이끈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한 것은 을사의병 때의 일이다(1906.5).

③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 의병은 13도 창의군[정미의병]이다(1907.12).

④ 의병 부대가 연합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것 역시 13도 창의군이다. 1908년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일본군의 선제공격으로 무산되었다.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한 의병 단체는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한 독립 의군부이다(1912.9).

38 - 독립 협회

정답> ②

(가)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 체제로 바꾸려 한다는 말을 꾸며서 폐하께 모함하고자 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병식', '박정양', '윤치호', '이상재'라는 이름의 인물들도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시된 자료의 대회는 관민 공동회(1898.10~11)이고, (가)는 독립 협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 활동을 통해 러시아의 절영도(오늘날의 부산 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여 이의 철회를 이끌어낸 바 있다(자주 국권 운동의 일부).

오답 해설>

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

③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 자강회이다(1907.8).

④ 계몽 서적 출판을 위해 태극서관이 설립된 것은 1905년 5월이다. 이후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밀결사 신민회의 산하기관 구실을 하였다(1907.4). 신민회원들의 연락 장소 및 집회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다.

⑤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국채보상 기성회이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민간 신문사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

39 - 조선 의용대

정답> ⑤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1910~1944)의 활동을 알리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38년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우한에서 창설되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가)는 중국 관내(關內)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인 조선 의용대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의용대는 이후 일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한국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고, 주력은 조선 독립 동맹이 이끄는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로 '중국 관내'란 산해관 안쪽의 중국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①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한 부대는 조선 혁명군이다.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흥경성 등지에서 일본과 만주의 연합군을 격퇴하였다.

②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한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다.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한 부대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다(1932.9.11).

④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부대는 대한 독립군단이다(1920.12).

40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정답> ②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임시 약헌을 개정하여 임시 정부의 조직 기구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종전에 국무 위원끼리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하고 총리격, 국가 원수격의 주석을 두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국무 위원 집단 지도 체제에서 주석 중심 지도 체제로 변경한 4차 개헌임을 알 수 있다(1940.10).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 정부의 기본 이념 및 정책 노선(즉 조소앙의 삼균주의)을 담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오답 해설>

① (김규식을 통해)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1919년 5월의 일이다.

③ 무장 투쟁을 위해 (만주 집안현에서) 육군 주만 참의부가 조직된 것은 1924년 6월이다.

④ 국민 대표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6월까지 진행).

⑤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한 것은 1919년 7월의 일이다.

41 - 홍범도

정답> ③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다는 점에서 제시된 자료의 (가)는 홍범도(1868~1943)임을 알 수 있다. 대한 독립군은 1919년에 홍범도가 의병 출신 중심으로 창설한 항일 독립군 부대이다. 1920년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오답 해설>

①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한 (대표적인) 인물은 도산 안창호(1878~1938)이다(1907.4).

② 광복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한 인물은 몽양 여운형(1886~1947)이다(1944. 8).

④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석오 이동녕(1869~1940), 우당 이회영(1867~1932), 성재 이시영(1869~1953), 석주 이상룡(1858~1932) 등을 들 수 있다(1911년 봄).

⑤ 독립 투쟁 과정을 정리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20).

42 - 6·10 만세 운동

정답> ④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전개되었다는 점, 당시 중앙고보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다는 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1926년 6월에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된 6·10 만세 운동임을 알 수 있다. 6·10 만세 운동은 원래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다함께 준비한 운동으로, 이를 계기로 양 세력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이후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순종이 실제로 사망한 날은 1926년 4월 25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일제 조선 총독부와 만주의 군벌 장쥘린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 미쓰야 협정은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 독립운동자의 체포, 인도와 관련된 협정이다.
- ②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운동은 1929년 11월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 ③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은 1907년 2월 대구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이다.
- 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를 구호로 내세운 운동은 말 그대로 브나로드 운동이다. 1931년부터 동아일보에 의해 추진되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문자 보급 운동을 벌였다.

43 - 의열단

정답> ⑤

김원봉, 유우근, 한봉근이라는 인물, 나석주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조선 식산 은행에 폭탄을 던진 내용 등이 나와 있다(1926). 1919년 11월 만주에서 조직된 의열단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열단은 1920년대 중반 이후 개별적 의혈 활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규모 군사 활동을 위한 일환으로 단원 일부가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1926). 참고로 1932년에는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태평양 전쟁이 일제에 의해 발발한 것은 1941년 12월이다.
- ②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단체는 독립 의군부이다(임병찬, 1912.9).
- ③ 만민 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한 단체는 독립 협회이다(1898).
- ④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을 큰 타격을 입은 단체는 신민회이다(1911.1).

44 - 1920년대의 사회 모습

정답> ①

나운규가 감독·주연을 맡아 제작한 영화라는 점, 단성사에서 개봉되어 식민 지배를 받던 당시 한국인의 고통스런 삶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을 통해 제시된 영화는 1926년 10월에 개봉된 영화 아리랑임을 알 수 있다. 일명 신경향파로 불리는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가 결성된 것은 1925년 8월이다(1926년 1월 준기관지인 '문예운동' 발간).

오답 해설>

- ② 원각사에서 은세계가 (처음) 공연된 것은 1908년 11월이다.
- ③ 육영 공원이 세워진 것은 고종 23년인 1886년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전차가 처음으로 개통된 것은 광무 3년인 1899년이다(서대문~청량리).
- ⑤ 손기정 선수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1936년 8월 9일의 일이다. 참고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이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이 발생하였다.

45 - 일제 강점기 말의 일제 정책

정답> ③

'국민 노무 수첩'에 대해 나와 있다. 제시된 자료의 설명대로 중일 전쟁(1937년 7월 발발) 이후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제가 발행한 것이다. 우리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한 것은 1941년 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한국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것은 1912년 4월이다(무단 통치기).
- ②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이다(무단 통치기). 참고로 회사령이 철폐되고 신고제로 전환된 것은 1920년 4월이다.
- ④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한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제정된 것은 1911년 8월이다.
- 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2년 8월이다(~1918). 일제는 한국 병탄 전인 1910년 3월에 이미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였다.

46 - 정읍 발언과 남북 협상 사이의 사실

정답> ①

(가)에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조직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승만의 이른바 '정읍 발언'이다(1946.6.3). (나)에는 남북 통일과 독립을 이루고자 김구가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구와 김규식이 단행한 남북 협상과 관련된 내용(신문 기사)임을 알 수 있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벌인 것은 1948년 4월이다. 좌우 합작 위원회에 의해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1946년 10월 7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의 일이다.
- ③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 16일이다. 28일까지 진행되었다.
-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0월이다.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

47 -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

정답> ⑤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제3대 대통령 선거(1956.5)에서 선전하자 (가) 정권이 서울시경을 이용하여 조봉암을 체포, 조사하고 결국 간첩 혐의로 처형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승만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이른바 '진보당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진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58년 1월이고 조봉암이 처형된 것은 1959년 7월이다. 이승만 정부는 이외에도 반공 체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1958년 12월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보안법 파동'), 이듬해 4월에는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언론 탄압을 자행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유신 헌법에 의해]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이 선출된 것은 유신 체제 하의 일이다(1970년대).
- ②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부터이다.
- ③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된 것은 1980년 8월에서 1981년 1월의 일이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이른바 '국보위')가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하였다. 참고로 이때 총 6만 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되어 그 중 순화 교육 대상으로 분류된 3만 9,742명이 군부대 내에서 삼청 교육을 받았다.
- ④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가 파견된 것은 1963년 12월의 일이다(제1차 광부 파견 협정). 이후 1977년 말까지 11년간 7,936명의 광부가 서독에 파견되었다.

48 -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정답> ②

포항 종합 제철 공장 제1기 준공식이 거행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포항 종합 제철 공장은 제시된 글 그대로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분야의 원재료로 쓰이게 될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세워졌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3년 7월 3일의 일이다.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시기는 1972년에서 1976년까지이다.

오답 해설>

-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12월이다.
- ③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2004년 4월로 노무현 정부 시기이다.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이다.
- 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이다(1986년~1988년).

49 - 5·18 민주화 운동

정답> ②

공수 부대가 학생들의 시위에 잔인하게 대응하면서 상호 간에 폭력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광주에 거주하던 25명의 미국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군인들이 저지른 무차별적 폭력'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시된 자료는 1980년 5월에 발생한 광주 민주화 항쟁임을 알 수 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은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1964년 6월에 발생한 6·3 시위이다.
- ③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이다(1960).
- ④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한 것은 유신 체제 하의 재야 인사들이었다. 1976년 3월의 일이다.
- ⑤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호헌 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운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 항쟁이다(1987).

50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정답> ③

지난 3년 반의 개혁을 통해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점,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이와 같은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외환 위기가 발생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이었고,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에서 2003년 2월 25일까지 집권하였다. 남과 북 사이에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2000년 6월 15일이다. 참고로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조기 상환한 것은 2001년 8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1972년 7월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한다.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
-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남북이 서명한 것은 1991년 12월로 역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
- 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실현된 것은 1985년 9월로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